

한 달에 한 번...금남로 '차 없는 거리' 어때요?

광주시 동구, 7월부터 금남공원~충장로1가 시범 운영 검토 “보행자 중심 열린 광장서 문화예술행사...상권 활성화 도모” 지하상가 상인들 “차량 접근성 떨어져 매출 되레 줄 것” 반발

광주시 동구가 금남로(1~2가)를 매월 한차례씩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구가 금남로를 보행자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들은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1월부터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TF'를 꾸리고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앞서 상인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금남공원부터 충장로1가 입구까지 540m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차량이 통제된 금남로에서 주기적으로 예술·문화 행사를 열어 문화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2024-2025년 월 1회씩 시범 운영하고 2026년까지는 월 2-4회, 2027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등 점진적으로 통제일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안도 검토 중이다. 통제된 거리에서는 축제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주도 거리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동구 측은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걷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브랜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종전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 등에서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려 했던 때와 유사한 반응이다.
동구가 지난 1-5일 충장로와 금남지하도상가 등 상인회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 고객층은 버스 및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을 통제하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상권이 악화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장축제, 5·18 행사 등 기존 행사에서 도로를 통제하던 것까지는 명분이 있으니 이해하지만, 월 1회 이상 통제하는 것은 상인 측에서 받아들일

명분도 없으며 상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각종 행사 때문에 차량 통행을 막을 때마다 지하도상가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지하상가 화장실에 쓰레기만 잔뜩 쌓이는 등 피해만 봤다"고 지적한다.
곽미란 금남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은 "요즘 사람들이 모두 차 타고 다니는 마당에 충장로 주차장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마땅한 교통 대책도 없이 통행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실제로 각종 행사 때만 해도 지상에 콘텐츠가 몰려 있어 시민들이 지하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뜰이나 광주동부경찰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주기적으로 금남로 교통 통제까지 하려면 손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금남로1-2가를 통제하려면 문화전당로, 광주천변, 한미쇼핑 사거리 등 우회 차량이 몰리는 인

근 도로까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광주동부경찰 교통 인력은 야간근무자를 포함해 4명씩 3개조 뿐이라 비번근무자를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광주경찰 기동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사 열릴 때마다 경찰에서 교통 관련 민원을 감내했었는데, 통제 주기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교통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스에서 추진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지역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교 앞 아이들 먹거리 점검
개학을 앞둔 20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북구 직원들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상태와 정서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 조사위, 미진한 조사 덮으려 일방적 의견 수렴”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게 과제별 진상 조사결과 보고서(초안) 공개를 촉구 하고 나섰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진상 조사위는 각 과제별 진상규명사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13일 진상조사위가 광주시, 광주시 의회, 광주시 교육감 등에게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을 주고 의견제안을 요구했다”면서 “보고서 내용조차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안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지자체, 시민 등의 의견이 담겨야 한다.
민변은 “각 조사과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수렴 하

겠다며 2주도 채 안되는 기간을 준 것은 절차를 거 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이라며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수렴에 앞서 투명한 보고서 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중 15건을 진상 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조사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최종 국가 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고3 시위대’ 故 차종성씨 대학 졸업장 받는다

전남대 26일 명예졸업장 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3 시위대’로서 계엄군에 맞서다 옥살이를 하고 고문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차종성(사진)씨가 전남대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전남대는 오는 26일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차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962년생으로 4형제 중 맏이었던 차씨는 금호 3학년이었던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인근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구타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뒤 고난을 겪었다. 당시 “왜 사람을 때리느냐”며 항의했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한 뒤, ‘폭도’로 몰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차씨는 45일 동안 옥살이를 하며 고문과 구타를 당하다 고교 담임이었던 한모 교사의 증언으로 가까스로 석방됐다.
이후 차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정보와 형사들이 24시간 내내 차씨를 감시하고 있어 편히 쉬지도 못했다.



차씨는 재수 끝에 1982년 전남대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다.
전남대에서는 단과대학 생회 간부를 맡았으며 운동권 탈출 동아리에 가입해 각종 집회에 참석했다가 수차례 시위 주동자로 몰려 경찰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차씨는 결국 1983년 2월 고문·구타 후유증으로 갑비빠와 척추가 비틀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돼 적십자병원에서 입원했으며, 같은 해 3월 4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복막염으로 숨을 거뒀다.
차씨의 동생인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실 부장은 “형님의 고귀한 희생을 전남대에서 재평가해 41년만에 졸업장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 “홀몸으로 4형제를 키우기 위해 새벽 막노동을 하다 큰아들을 떠나 보낸 어머니가 생각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형님에 대한 한스러운 마음이 풀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북구, 자치구 최대 규모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광주시 북구가 44억원대 소상공인 3無 특례 보증 지원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제도는 북구지역 임차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재창업자는 3000만원) 범위 내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6%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두 사업은 내달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이뤄진다. 특례보증 지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포용금융 이자차액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김대인 기자 kdi@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장정인 시인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